

# 2022. 2월 2주 언론보도 스크랩

## [활동실적] 설연휴 특별경계근무 소방활동 실적

### 강원도민일보

2022년 02월 03일  
05면 (사회)

## 설 연휴 119 신고 접수 일 평균 '1051건'

### 정선 솔치재터널서 3중 추돌사고 횡성 스키장 리프트 멈춰 구조 등

설연휴기간 귀성·귀경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 2분쯤 정선군 정선읍 솔치재터널 입구에서 차량 3대가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20대 A씨 등 2명이 숨졌으며 3명이 부상을 입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날 오전 8시 6분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중앙고속도로 신평 나들목부근에서는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10대 탑승객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구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쯤 횡성 웰리힐리파크리프트가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탑승해있던 30여명의 이용객들은 스키장 관계자들이 밧줄 등을 이용해 구조했다. 이날 사고는 리프트 의자에 달린 바퀴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난방기기사용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도 속출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4분쯤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의 한 창고에서 담뱃불 투기로 인한 불이나 건축자재가 모두 불에 탔다. 같은날 오전 9시 21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레미콘 곤장에서는 열선과 열로 추정되

는 불이나 콘크리트 혼합기 연결배관이 불에 탔다. 또 이날 오전 8시 56분쯤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의 농막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컨테이너 등이 전소, 약 785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도 속출했다. 1일 오후 3시 54분쯤 강릉시 흥제동의 한 연못 위에서 썰매를 타던 여아 2명 등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져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세, 4세 여아를 구조한 뒤 이들의 조부모인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각각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전 11시까지 도내에서는 총 6310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일 평균 1051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구본호·지역종합

(17.1\*11.2)cm

## “산행 중 절벽서 추락했는데 산악구조대 덕분에 목숨구해”

구조된 시민 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사연 게재

산행 중 길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던 한 시민이 자신을 구해준 산악구조대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려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A씨는 설 연휴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2분께 속초시 설악동 켄싱턴리조트 뒤편 야산을 산행하던 중 길을 잃고 5m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했다.

A씨는 “하산하던 중 굴러떨어져 팔다리가 골절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했다”며 “구조대원분들이 들것과 로프 등을 이용해 4시간에 걸쳐 구조해주셨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냥

걸어도 힘든 길을 들것을 메고 내려가는데도 불평불만 없이 당연하게 하시는 대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을 기동처럼 받들고 있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곧 팔다리가 나을 것 같으니 구조대원들께 한턱 쏘겠다. 앞으로 119구조대를 위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에 대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산악구조대는 답글을 통해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빠른 쾌차를 기원한다”며 “믿어주신 만큼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2년 02월 03일  
23면 (인물)



**도소방본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쌀 전달**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최근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쌀 1000kg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희경)에 전달했다.

(7.5\*5.7)cm

매일경제

2022년 02월 07일  
(정치)

## '두껍겻지' 빙판서 놀다가 풍덩...해빙기 안전사고 대책 추진

강원서 3년간 수난사고 86건 발생·26명 구조



고립된 수륙양용차 탑승자 구조

강원도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3월 31일까지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

이달 초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평년 기온과 비슷하고, 3월은 평년보다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2019~2021년 해빙기(2~3월) 수난사고 86건이 발생해 26명을 구조했다.

최근에는 지난 1일 강릉시 홍제동 한 연못에서 일가족 4명이 썰매를 타다가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고, 지난달 29일 춘천에서는 수륙양용차가 얼음 위를 주행 중 얼음이 깨지면서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강원소방은 강·하천·저수지 등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해빙기 위험지역 304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고 표지판이 없는 곳은 자치단체와 설치를 협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인명구조태세 강화도 추진한다.

박순걸 방호구조과장은 "해빙기에는 얼음 두께가 얇아 절대 얼음뉘시나 빙상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강원소방, 해빙기 대비 하천·유원지 안전 점검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늘(7일)부터 다음 달(3월) 말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소방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강원도 내 하천과 유원지 등 300여 곳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지역 경고 표지판 설치 여부, 간이구조함 이상 여부 등입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 2022년 도민 모두가 안전한 강원도

#### 목요단상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40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수호하기 위해 안전 최고령지향하는 강원도형 안전 청사진을 그려본다. 비전은 '도민 안전 최우선,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이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게 하며, 특히 강원도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도민 체감형 현장 대응력을 강화, 재난초기부터 가용인력 총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통합 지휘체계를 운영하며, 고층·요양시설·지하주차장 등 특수화재 유형별 위험분석을 통한 강원도만의 대응 전술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피해 우려시 영서지역 소방차 23대를 전진배치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 우려시 선제적 전국동원령 요청과 기존의 산림인접 주택방어에서 나아가 공격적·적극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변경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구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신속대응과 전문성제고

를 위한 전담 119구급대를 지정 운영한다. 속초·고성·평창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중인 경증환자와 무증상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 긴급이송체계와 코로나19현장대응점검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로 예방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 전략 분야다. 24억70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IoT 주택화재 안전시스템 점검·확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화재에 대비한 입소자 상태별 대피·구조를 위한 대피식별표를 운영해 안전약자 이용시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사각지대의 고위험, 장애인, 다문화임산부에 대한 119구급이송서비스 실시로 안전약자에 대한 강원도형 맞춤형 소방서비스도 지원한다. 여름, 피난체험 등 40종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체험 캠프를 개최, 안전교육 강화 및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셋째로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분야다. 미래형 육상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97억원의 사업비로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물탱크+배연+화학차량을 융합한 특수화재 진압 등 다각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기능 화학차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안 대형산불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소방헬기 도입 사업도

2024년까지 2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정보화 시스템 추진을 위해서는 67개 아파트단지 내 전자지도로 개별 동까지의 출동경로를 알 수 있는 소방 긴급차량 전용 출동경로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소방특별조사, 소방용수점검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도록 휴대폰, 태블릿 PC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청렴한 소방 조직문화 구현이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근거리, 근무기간, 재직기간 등을 포함한 전보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소방인사 전보 시스템 구축, 특별승진제도의 소방경 이하 확대 운영을 통해 공명정대한 인사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운전시간 총량제 등 다양한 사고저감정책을 펼치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서 구내식당 급식 개선 운영을 위한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건전한 노조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노사협의회를 운영,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도 구축한다.

지난 한 해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만 43만 건에 달한다. 1분마다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3분 쯤으로 현장출동한 것이다. 그만큼 소방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강원소방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2년 02월 09일  
04면 (사회)

## 강원소방 올해 주요업무 4대 전략 추진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 ‘도민 안전 최우선,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 체감형 현장대응력 강화 △안전하고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구현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도민 체감형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통합지휘체계를 운

영한다.

또 ‘예방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 전략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특수대응단’, ‘환동해특수대응단’ 직속기관화를 추진한다.

‘안전하고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소방인사전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승진제도 확대

운영(소방경 이하)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4,0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혼연일체가 돼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17.5\*7.0)cm

2022년 02월 06일  
(정치)

매일경제

## 강원소방, 재난 초기부터 총력대응... "안전이 최우선"

현장대응력 강화 등 4대 전략 17개 과제 추진



화재 진화하는 119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는 재난 초기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는 '도민 안전 최우선 신뢰받는 강원소방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4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민 체감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 초기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유형별 위험분석을 통한 강원도만의 대응전술 개발에 집중한다.

대형산불에 대비해 영동지역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한 비상 소화장치 820개를 점검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될 때는 민가 보호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변경할 방침이다.



산불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  
 강원소방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구급 이송 서비스, 투신 사건이 잦은 교량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 확보에도 힘쓴다.

또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다기능화학차와 중·대형 소방헬기 도입, 소방 긴급차량 전용 출동 경로 안내 서비스 구축, 119 영상 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거리, 근무 기간, 재직기간 등을 포함한 전보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소방인사 전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별승진제도는 소방경 이하로 확대 운영해 공명정대한 인사문화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이 밖에 소방차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소방서 구내식당 급식도 개선하며, 건전한 노조 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2년 02월 09일  
21면 (인물)



**횡성119항공대원 3명에 '트라우마 세이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윤상기)는 지난 7일 특수구조단 소속 횡성119항공대 박강열 소방위, 강덕철·오인택 소방장 등 대원 3명에게 트라우마 세이버를 수여했다.

(9.9\*6.1)cm

# 법 시행에도 개물림 사고 되풀이...“맹견 관리 체계 개선 시급”

구본호

강원도내 연평균 137건 발생  
현행법 맹견 '5개 견종' 한정  
그외 입마개 의무 제외 허점

속보=춘천의 한 주택가에서 목줄이 풀린 사냥개들이 80대 노인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본지 2월 9일자 5면)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법안 시행에도 한 해 평균 140여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현행법상 반려견이 아닌 사냥견의 경우 '사냥 목적'을 이유로 목줄과 입마개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총 548건으로, 연 평균 13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9일 영월군 주천면에서는 50대 남성이 개에 입술을 물려 약 5cm 가까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4월 17일 삼척시 원덕읍에서는 50대 여성이 손등을 물려 인대가 보일 정도로 패이는 사고를 당했다.

또 같은 해 2월 24일 영월군 김삿갓면에서는 도사견이 60대 남성에게 달려들면서 왼팔을 물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움푹 패이는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5개 종류의 맹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만 맹견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춘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냥개 공격 사고는 현행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반려목적이 아닌 수렵목적으로 키워지는 사냥개들의 경우 공격성이 강한 견종들과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지는 교배종들로 현행법상 등록 의무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렵인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사냥견들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어 맹견들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크고 작은 맹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한게 현실이다”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맹견에 대한 관리와 사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bono@kado.net

bono@kado.net

## [정책보도] 문화재방재의날.. 초기진화 시스템 확충

KBS 춘천

2022년 02월 09일  
(강원)

### 내일은 12번째 문화재방재의날...초기 진화 시스템 확충 시급



[앵커]

내일(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입니다.

국보 제1호 송례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법정기념일인데요.

이 날이 제정된지 1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 청평사입니다.

보물 164호 회전문이 있고, 절터 전체가 강원도기념물입니다.

소화전과 소화기는 기본이고, 고화질 CCTV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합니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도 됩니다.

[백민호/문화재방재학회장 : "송례문이 (불에) 타고, 낙산사가 타고 나서 우리한테 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잘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 그게 이제 문화재 방재의 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시도 지정 문화재만해도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일단 소방차 접근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와 송수관이 있더라도 초기 진화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찾길은 없고, 돌계단으로 이어진 길을 160미터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더 취약합니다.

조선시대에 세워진 열녀문인데, 방재 시설이라곤 소화기 2대가 전부입니다.

소화전도, CCTV도, 상주 관리 인력도 없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이를 알아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고형순/강원도문화재연구소 보존관리팀장 : "문화재 자체에 전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할 여건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문화재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의 비지정 문화재 현황을 조사해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이청초

## [정책보도] 자동소화장치, 화구 위에 달아야원주

KBS 춘천

2022년 02월 09일  
(강원)

### 자동소화장치, 화구 위에 '기름 화재용' 달아야



[앵커]

식당은 불과 기름을 많이 다루다보니,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동 소화장치 같은 진화 시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애써 달아놓은 이런 시설이 잘못 설치된 경우가 흔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기름에 붙은 불이 삼시간에 가게 전체로 번졌습니다.  
초기 진화를 못 한 게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내부입니다.  
주방 천장 한편에 화재감지기와 자동소화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 장치의 위치입니다.  
불이 날 위험이 큰 건 화구인데, 소화장치는 한참 떨어진 곳에 달려 있습니다.  
불을 초기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구좁니다.  
또 다른 식당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화구와 소화장치 사이를 환기 시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영희/식당 영업 :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 그래서, 종류는 잘 모르고 그쪽에서 소방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제품을 사서 달고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달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당 화재는 주로 기름이 원인인데, 소화장치는 기름 화재 진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주방에서는 기름 사용이 많지만, 달려있는 건 이렇게 일반 분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장치의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 분말식 소화장치는 2~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기름 화재에 특화된 소화 장치는 18만 원 정도.

값이 9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에선 진화 효율보단 값싼 소화 장치를 선호합니다.

[김근식/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기획계장 : "특화된 자동화산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방, 식당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식품 관련 화재는 480여 건.

이 가운데 4분의 1은 기름으로 인한 불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goldman@kbs.co.kr

## 강원소방, 구급대원·시민 '하트세이버' 75명 선정



강원소방본부가 구급대원 70명과 시민 5명 등 '하트세이버' 7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응급 처치를 통해 지난해 심정지 환자 20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또 급성 뇌졸중 환자 9명을 구한 25명에게는 '브레인 세이버'를, 중증외상 환자 4명을 구한 구급대원 17명에게엔 '트라우마 세이버'를 수여했습니다.

이청초

## [정책보도] 중증응급환자 생명소생률 및 시상홍천

매일경제

2022년 02월 10일  
(정치)

### 강원소방,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 33명 살려... 소생률 증가



하트(왼쪽부터)·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심정지 환자나 뇌혈관 질환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 33명을 살린 구급대원과 일반인 총 117명에게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구급대원 등에게 주어진다.

브레인 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이에게,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 유지와 장애를 저감에 이바지한 이에게 수여된다.

특히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견줘 넓은 면적과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2020년 8.7%에서 2021년 10.6%로 끌어올렸다.

이는 전국 평균인 9.8%보다 높은 수치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의료지도 운영, 구급대원 교육 내실화, 구급차와 연계한 헬기이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천소방, 구급대원에 하트세이버 수여  
[연합뉴스]

## 江原日報

2022년 02월 11일  
04면 (사회)

### 강원소방 중증환자 생존율 증가

강원소방의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소방은 지난해 1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2020년 98명에 비해 26명 늘어난 수치로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역시 2020년 8.7%에서 지난해 10.6%로 상승했다. 강원도의 생존율은 전국 평균 9.8%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도내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수상자는 33명의 중증환자를 살린 구급대원 및 일반인 117명이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등에게 수여되고, 브레인세이버는 급성뇌졸중환자의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할 경우 받을 수 있다. 트라우마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된다.

수상 실적이 생존율 실적에 비해 낮은 것은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가 회복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등 세이버 수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권순찬기자

(5.7\*14.6)cm

## [정책보도] 산불화재 합동훈련 및 예방대책(양양)

KBS 춘천

2022년 02월 10일  
(강원)

### [여기는 강릉] 화목 보일러 화재 원천 차단...산불 방지



[앵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김단우 아나운서! 요즘 보일러 연통이 과열되거나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농촌 지역에서는 난방용 화목 보일러를 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불철 산불 취약 시기를 앞두고, 화목보일러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5월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29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72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주택 화재를 일으켰고,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토성면 산불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화목 보일러가 원인이 된 산불은 모두 7건에 이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간 의용소방대원들이 검게 그을린 화목 보일러 연통을 뽑아냅니다.

관리가 잘되지 않은 노후 연통을 교체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의 주요 원인인 보일러 재 처리 방법 등 화재 예방 교육도 한 달 동안 이어 집니다.

[김대혁/양양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 "보수 점검 및 굴뚝 청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목 보일러의 과열로 인해서 불티가 날아가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때문에..."]

다가오는 불철 산불 취약 시기를 대비해 각종 진화 훈련 등을 통한 산불 대책도 강화됩니다.

산림과 가까운 마을에 설치한 비상 소화장치 등 진화 장비를 활용한 훈련이 수시로 펼쳐 집니다.

화목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소형 스프링클러는 강원 동해안 시군 520여 가구에 추가 보급됩니다.

[이경오/양양소방서 예방민원담당 :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소화전 설치라든지, 산불 전문 장비인 '토네이도 관창'을 개발해서 산불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꼼꼼한 보일러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동해시, 5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32.5% 감소

동해시는 2015년 미세먼지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40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 27마이크로그램으로 3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산업 활동과 이동량이 감소하고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 관리 대책 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릉시, 도심 110km 구간 자체 정보통신망 설치

지능형교통체계, ITS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강릉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자체 정보통신망이 설치됩니다.

강릉시는 통신회선 임대료 절감과 신규 발생하는 통신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 110킬로미터 구간에 자체 광케이블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한희조 gmlwh1010@kbs.co.kr

# 도내 신고 건수 '압도적 1위' 원주... 출동인력 턱없이 부족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시대의 강원소방**

코로나19사태 전후로 강원도내 안전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인구 대비 사고 비율은 항상 비례해 왔다. 이 중에서도 150만 강원도민의 약 23%가 거주하는 원주시는 최다인구를 자랑하는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원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무엇이며 코로나19 이후, 원주소방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강원도민일보는 4년간(2018년~2021년)의 강원소방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원주의 안전망을 짚어본다.

## 2. 강원 최다 인구 원주 안전망 분석

### ■ 강원 유일 30만 도시 1인당 100건 담당

원주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30만명이 넘는 도시다. 지난해 12월 기준 내국인만 35만77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원주의 인구 증가세는 계속됐다. 2018년 12월 기준 34만4070명이던 원주 인구는 2019년 12월 34만9215명, 2020년 35만4376명으로 늘었다. 4년새 1만3687명(3.9%) 증가한 셈이다.

인구는 단구동, 반곡관설동, 무실동 등 도심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단구동 인구는 4만4736명으로 원주지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반곡관설동이 4만4719명으로 2위, 무실동이 3만4415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세 지역의 인구만 12만3870명. 원주지역 인구(35만7757명)의 34.6%를 차지한다.

한 해 원주지역에서는 3만 4000여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원주소방서 총원은 322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1인당 106.9건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 구조, 구급, 화재 출동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3~4교대 근무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출동인력은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 ■ 강원도내 출동 최다

원주는 각종 사건사고 출동 건수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집계한 강원도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출동 건수는 총 71만6189건이다. 연 평균 17만 9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중 원주는 4년간 압도적인 출동 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분석 결과 지난해 출동건수 19만5576건 중 원주에만 3만4410건(17.6%)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0년(15만7474건)의 경우 2만6845건(17%), 2019년(18만3749건) 2만9547건(16.1%), 2018년(17만9390건) 2만8786건(16%)으로 집계됐다. 도내 소방신고 접수 10건 중 최소 1건 이상은 원주에서 발생한 셈이다.

원주는 화재, 교통사고, 구조, 구급 등에서 출동건수 1위를 기록했다. 구급신고의 경우 원주출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원주지역에 접수된 구급 출동 건수는 2만2945건으로 강원지역 신고건(11만9557건)의 19.1%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춘천(1만9525건)보다 약 15%p(3420건)나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가장 적은 신고가 접수된 양구(1687건)보다 1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출동 역시 지난해 6556건으로 2위를 차지한 강릉(6229건)보다 5%(327건)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 출동 지역인 양구(866건)와 비교하면 7.5배 많았다.

이밖에도 안전조치(766건), 범죄제거(1579건), 동물포획(797건)에서도 원주소방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지형적·지리적 특성상 산악사고와 수난사고는 비교적 적었다. 산악사고의 경우 지난해 122건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8번째를 기록했다. 산악사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늘었지만 순위는 하락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5위(99건), 2019년 105건(7위), 2018년 178건(3위)을 각각 기록했다. 수난사고 역시 지난해 34건으로 강원도내 10위에 올랐다.

## 도내 유일 인구 수 30만명 이상 한 해 평균 3만4000여건 신고 소방대원 1인당 106.9건 담당

## 지난해 원주 3만4410건 접수 도내 전체 출동건수 17% 차지 구급 19.1% 춘천보다 15%p ↑

## 코로나 여파 2020년 신고 '최저' 지난해 다시 구조·구급 급증 실내 발생사고 안전조치 신고 불화·우울증 관련 출동 증가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역 주민들과 사고 발생 비율은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할지역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출동 수요도 늘어나 지역 안전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코로나19와 원주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각종 사건사고 신고 건수가 4년새 최저로 주저앉았다. 코로나 2년차인 지난해 최고치를 찍는 현상은 원주에서도 반복됐다.

코로나19가 강원도를 덮친 2020년, 원주는 화재, 구조, 교통사고, 범죄제거, 산악사고, 잠금장치 개방, 구급 등 대부분의 사건사고에서 4년새 가장 적은 출동건수를 기록했다.

가장 변화폭이 큰 분야는 역시 구조와 구급이다. 2020년 원주 구조건수는 4592건으로 4년새 최저치를 보였

다. 2018년 5267건에서 2019년 5542건으로 275건(5.2%) 증가한 구조건수는 2020년 들어 4000건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다 지난해 6556건을 기록 1년새 1964건(42.7%)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4년새 처음으로 6000건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구급도 마찬가지다. 2020년 구급 건수는 1만8456건으로 2018년(1만9339건), 2019년(1만9479건)과 비교해 1만8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2만2945건으로 4년새 처음으로 2만건대를 기록했다. 1년새 4489건(24.3%) 증가한 셈이다.

구급의 경우 초여름이 시작된 6월부터 여름 막바지인 9월에 집중됐다. 이 기간 구급 출동건수는 2193건(6월), 2372건(7월), 2125건(8월), 2038건(9월)을 기록, 6월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기간 접수된 구급 신고만 8728건으로 지난해 원주지역 전체 구급건수(2만2945건) 중 38%를 차지했다. 더욱이 2020년 같은 기간 구급 건수가 1632건(6월), 1757건(7월), 1842건(8월), 1554건(9월)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월 최대 600여 건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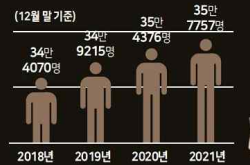
안전조치와 잠금장치 개방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이 제한되면서 내부활동이 크게 늘어난 탓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주에 접수된 안전조치 신고 건수는 766건으로 2020년 263건보다 약 3배 많았다. 2019년(219건)과 비교하면 2년새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원주지역 각 월별 안전조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2020년 4월 17건이던 안전조치는 지난해 4월 3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7월의 경우 2020년 30건이던 안전조치 신고건수가 지난해 88건으로 58% 증가했다. 8월에도 50건(2020년)에서 148건(2021년)으로, 10월에도 28건(2020년)에서 100건(2021년)으로 각각 98% (196%), 72% (257%) 급증했다.

일선 소방대원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 가족간의 불화, 우울증 등으로 인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이영희 원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사회적 변화와 심리적 압박을 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결국 그 압박과 제약에 못이겨 발생한 사고 위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현장에 출동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고원인들이 많아졌다. 가족간의 문제, 실종을 비롯해 자살 신고가 급증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 4년간 원주지역 내국인 증가 추이



### 시군별 신고 건수 대비 1인당 출동현황

지역	출동건수	직원수	1인당 담당 건량
원주	34410	322	106.9
춘천	29853	255	117.1
강릉	27898	279	100
동해	10877	191	56.9
태백	5322	169	31.5
속초	8813	157	56.1
삼척	10170	229	44.4
홍천	10505	216	48.6
횡성	8622	214	40.3
영월	6426	198	32.5
평창	8014	224	35.8
정선	6386	227	28.1
철원	5058	178	28.4
화천	3266	140	23.3
양구	3129	133	23.5
인제	5276	180	29.3
고성	6168	154	40.3
양양	6459	141	45.8

### 2020년, 2021년 원주 월별, 사건별 출동건수 추이 ※표 안은 2020년



###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원주 소방 출동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화재	361건	244건	279건	252건
구조	5267건	5542건	4592건	6556건
교통사고	521건	465건	415건	720건
동물포획	606건	744건	723건	797건
범죄제거	1683건	2220건	1463건	1579건
산악사고	178건	105건	99건	122건
수난사고	23건	15건	53건	34건
안전조치	303건	219건	263건	766건
잠금장치개방	505건	514건	502건	639건
구급	1만9339건	1만9479건	1만8456건	2만2945건